

공대명사분포와 제약위계

문 승 철*

(한국항공대학교)

Moon, Seung-Chul. 1999. Optimal Constraint Hierarchy in Cross-Linguistic Null Pronouns. *Linguistic Research* 17, 38-56. This paper discusses the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of null pronouns in English when approached from an Optimality Theory perspective. I argue that the constraint-violabil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both the distrib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null pronouns. I claim that we can not only simplify the statements of the null pronoun principles, but also account for certain data that have eluded previous theories by elevating this violability to a central place in the grammar. It is also shown that the different hierarchy of the same universal constraints can nicely explain why Korean allows quite free distribution of null pronouns in the subject and object positions in contrast to English in which it is allowed only in tenseless subject position. (Hankuk Aviation University)

1. 서론

본 논문은 영어자료를 중심으로 공대명사의 분포와 해석을 위해 최적성이론을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흥미있는 결과들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문법이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제약의 위반성을 이용해서 영어의 공대명사의 분포와 해석문제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만일 언어현상을 통제하는 제약들의 위반성과 계급성을 문법이론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적절한 설명이 대단히 어려웠던 문법현상들을 몇 개의 보편제약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의 전통문법이나 최근의 기타 다른 언어학이론에서는 모든 제약들이 기본적으로 위반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Prince and Smolensky (1993), Grimshaw and Sameck-Lodovichi (1995), Moon (1995)의 가정을 따라 자연언어의 제약들은 본질적으로 위반이 가능하며 많은 예외들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많은

* 한국항공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e-mail: scmoon@mail.hankong.ac.kr

문법현상들이 위반이 불가능한 제약들의 적용결과라면 인간문화의 반영체인 자연언어 속의 모순된 상반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위반불가능한 제약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최소주의와 위반가능한 제약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최적성이론을 비교 논의한다. 2장에서는 최적성이론의 기본모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영어에 존재하는 공대명사와 통제현상을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최적성이론을 적용하여 영어 공대명사 현상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영어의 경우로부터 얻은 관찰을 한국어 공대명사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성이론의 설명적 보편성을 관찰해본다. 6장에서는 5장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하고 이 현상들이 문법이론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논의로 논문을 결론한다.

1. 최소주의이론과 최적성이론

통사이론의 목적은 한 언어의 화자가 그 언어로 된 문장을 발화하고 이해하고 그 문장의 정형성(well-formedness)을 판단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다. 단어가 조합되어 절을 이루고 절이 조합되어 문장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문장의 단어와 절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통사이론이다. 예를 들면 영어화자는 (1a)의 문장이 정형의 영어문장이고 (1b)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1c)에서 *herself* 가 *Susan*을 의미하고 (1d)에서는 *her* 가 *Susan*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 (1) a. Pat ate an apple.
 b. *Pat an apple ate.
 c. **Mary thinks that Susan saved some cake for herself.**
 d. **Mary thinks that Susan saved some cake for her.**

그러나 설명적 타당성이 있는 통사이론이란 특정 언어를 분석하는 일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진 통사적인 요소들과 언어사이에 존재하는 통사변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적성이론은 많은 언어들에 위반 가능한 일련의 제약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며 또한 언어마다 위반 가능한 제약들간에 계급이 서

로 다르다고 제안한다. 이런 면에서 최적성이론은 원리매개변항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나 최소주의이론(Minimalist Program) 등 다른 최근의 언어이론들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 원리매개변항이론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위반이 불가능한 원리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원리들의 구체적인 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언어마다 통사적으로 구조가 상이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살펴보자. 언어구조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두 언어가 어떤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리매개변항이론에서 주장하는 원리란 것은 모든 언어들의 공유자질들을 통제하는 일련의 규칙들이다. 원리들은 본질상 위반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즉 많은 원리들은 보편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언어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갖는 매개변항도 있다. 우선 문장의 구성순서를 통제하는 원리를 살펴보자.

정문(1a)와 비문(1b)가 서로 다른 점은 바로 동사 *ate*의 위치와 보어인 *an apple*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만일 모든 언어의 순서가 영어와 같다면 그냥 단순히 동사가 항상 보어를 선행한다는 위반이 불가능한 원리 한 개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 혹은 힌디어 같은 많은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동사와 보어의 순서를 통제하는 원리를 수정해서 동사와 보어를 하나의 구성소로 묶어주어야 한다. 초기 원리매개변항이론에서는 두 가지 매개변항이 있다. 좌핵(Head-initial)과 우핵(Head-final)이 그것이다. 영어와 한국어는 다음 (2)와 (3)처럼 동사구원리를 준수한다.

- (2) a. 영어: 주어-동사-목적어 (SVO)
- b. 한국어, 일본어, 힌디어: 주어-목적어-동사 (SOV)
- (3) 동사구형성원리: 동사와 그 직접목적어는 하나의 구성소인 동사구를 형성한다.
- 핵매개변항(Head Parameter):
- a. 동사구에서 동사가 먼저 위치한다.
- b. 동사구에서 목적어가 먼저 위치한다.

더 흥미있는 사실은 동사구형성원리도 더 일반적인 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동사구처럼 명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소를 형성한다. 모든 어휘범주(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들은 더 큰 구성소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충어구(complement phrase)와 결합한다. 만일 명사구가 동사구와 결합방식이 다르다면 원리가 대단히 복잡하겠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언어는 대단히 드물다. 즉 명사구에서는 핵이 왼쪽에 나타나

고 동사구에서는 핵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언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4-6)에서처럼 어느 한 언어에서 핵이 왼쪽에 나타나면 일관성 있게 왼쪽에 나타남으로서 더 큰 구성소를 형성한다.

(4) 영어의 핵-보충어 관계: 항상 핵이 좌측에 위치한다.

- a. VP [ate an apple] :동사구에서 동사가 좌측에 위치
- b. NP [mothers of twins]:명사구에서 명사가 좌측에 위치
- c. AP [fond of babies] :형용사구에서 형용사가 좌측에 위치
- d. PP [into the river] :전치사구에서 전치사가 좌측에 위치

(5) 한국어의 핵 보충어 관계: 항상 핵이 우측에 위치한다.

- a. 동사구 [사과를 먹다] :동사구에서 동사가 우측에 위치
- b. 명사구 [아름다운 소녀] :명사구에서 명사가 우측에 위치
- c. 형용사구 [대단히 아름다운]:형용사구에서 형용사가 우측에 위치
- d. 전치사구 [층으로] :전치사구에서 전치사가 우측에 위치

(6) 구 형성 원리: 한 어휘와 그 보충어는 하나의 구를 형성한다.

핵매개변항:

- a. 핵은 구의 좌측에 위치한다.
- b. 핵은 구의 우측에 위치한다.

Chomsky(1992)의 최소주의이론 (Minimalist Program)은 매개변항의 임의적인 요소를 가능하면 많이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최소의 매개변항으로서 격자질(Case), 일치자질(Agreement), 혹은 시제자질(Tense) 등과 같은 것만을 남겨 놓고 있다. 촘스키(1995b)는 이러한 자질들이 인준자(licensor)에 의해서 점검 받아야 한다는 보편원리를 가정하고 있다. 자질이 점검을 받으려면 자질을 가진 요소는 핵 선행위치에 있는 지정어(Specifier) 자리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핵에 의해서 관련자질이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자질들이 강자질인지 약자질인지에 따라 언어들 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 강자질인 경우에는 가시적으로(overtly) 핵 선행위치인 지정어 자리로 가서 자질점검을 받고 약자질인 경우에는 가시적인 이동현상(overt movement)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주의이론이 문법의 격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모든 언어에는 문법적인 격이 있다. 어떤 언어에서 격이 강자질이고 다른 언어에서는 약자질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한국어에서 격자질이 강자질이라면 보충어가 동사를 선행하는 지정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만일 영어에서처럼 격자질이 약자질이라면 보충어는 동사 다음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격 현상을 통제하는 보편원리들이란 구 형성 원리와

모든 강자질은 가시적으로 점점 받아야 한다는 만족원리(Satisfy Principle)이다. 한국어에서는 격자질이 강자질이고 영어에서는 약자질이라는 규정으로 핵개변향을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음 (7)처럼 수정된 구 형성 원리를 제안함으로써 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7) a. 구형성원리: 한 개의 어휘와 보충어와 지정어는 하나의 구를 형성한다.
- b. 만족원리: 강자질은 지정어위치에서 가시적으로 점점 받고 약자질은 지정어자리에서 비가시적으로 점점 받는다.
- 매개변항: 격자질은 {강/약}하다

최소주의 문법에서는 핵을 따라 나오는 보충어는 자질점검을 받기 위해 핵선행위치인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만 한다. 만일 자질이 강자질이면 위반 불가능한 원리인 만족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가시적 이동이 일어나야 하고 약자질이면 가시적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만족원리는 이동현상 없이 (vacuously) 준수된다.

만일 이러한 핵과 보충어간의 언어간 변이(cross-linguistic variation)를 최적성이론으로 처리한다면 최소주의이론에서 제안한 원리들을 응용해서 좀 더 일반화된 보편적인 제약율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8b)의 일반화된 만족원리와 (9b)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지연(Stay)제약사이에 계급을 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8) a. 최소주의이론의 만족원리: 강자질은 지정어위치에서 가시적으로 점점받고 약자질은 지정어자리에서 비가시적으로 점점받는다.
- b. 최적성이론의 일반화된 만족원리: 자질은 지정어위치에서 가시적으로 점점받는다.
- (9) a. 최소이론의 지연원리(Procrastinate): 꼭 필요할 때까지 이동하지 마라
- b. 최적성이론의 지연원리(Stay): 이동하지 마라

원리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8b)에서는 강/약자질의 구분이 없어지고 (9b)에서는 조건을 명시하는 구절이 없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외조항들을 제거함으로써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표(10)에서 보듯이 영어에서는 지연원리 > 만족원리 계급관계라서 보충어가 핵을 따라나오고 한국어에서는 만족원리 > 지연원리 계급관계라서 보충어가 핵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 영어경우의 표

Pat ate an apple	자연원리	만족원리
☞ Pat [vp ate an apple]		*
Pat [vp an apple ate]	*!	

(11) 한국어경우의 표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만족원리	자연원리
☞ 철수가 [vp 먹었다 사과를]	*!	*
☞ 철수가 [vp 사과를 먹었다]		*

원리매개변항이론이나 최소주의이론에서 매개변항의 설정이나 자질들의 강약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최적성이론에서는 (10)과 (11)처럼 위반이 가능한 보편제약들간의 다른 계급관계로 언어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어순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약들 사이에 계급(ranking)을 도입함으로써 원리매개변항이론이나 최소주의이론에서 복잡하게 규정해놓은 원리들을 일반화시킴으로서 제약자체를 단순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만일 제약을 위반 불가능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간 변이나 예외현상을 처리하기 위해 제약내에 잉여적인 조항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문법제약의 간결성과 보편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문법이론에서 제약의 위반가능성과 제약간의 계급성의 허용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최적성이론의 기본모형

입력부(Input): 최소주의이론에서처럼 최적성이론도 어휘부에서 단어를 선택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어휘부에서 선택된 단어는 완전한 굴절형태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음운론과 통사론의 차이 때문에 많은 해결해야 할 의문점들이 생긴다. 통사부에서 한 개의 개별단위가 의미적인 특성을 갖고 문장의 의미는 그 구조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음운론과 대조가 된다. 왜냐면 통사론과는 달리 음운론에서는 개별음소가 의미적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의문점은, 입력과 문장의 의미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가하는 점이다. Grimshaw(1996) 와 Samek-Ladovici(1996) 와 같은 통사론 분야의 몇몇 논문들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Legendre et al.(1995)와

Keer & Bakovic(1996) 같은 논문은 없다고 주장한다. 진단부(Evaluation)의 출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해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입력부내에 의미관계를 포함시킨다면 진단부와 입력부에 이중으로 의미를 점점하게 된다. 이것은 동일한 작업을 이중으로 하는 잉여현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주의이론이나 최적성이론이나 의미구조는 입력부가 아닌 출력부에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의문점은, Grimshaw(1996)가 주장하듯이, 입력부에 구조를 갖추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입력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생성부(Generator)에 대한 입력이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 구조를 갖추게 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입력부는 두 가지 기능을 갖어야 한다: 첫째, 구조적인 입력에 대해서 작동하는 생성부와 둘째로 입력에 구조를 만들어주는 예비생성부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성부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입력이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해도 여전히 입력요소들간에 순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입력을 순서를 갖춘 낱말의 배열이라고 가정하자. 예를 들면 <John, Bill, hit>과 같은 배열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6개의 입력은 다음 (12)처럼 6가지가 될 것이다:

- (12) a. 'hit John Bill'
 b. 'hit Bill John'
 c. 'John hit Bill'
 d. 'Bill hit John'
 e. 'John Bill hit'
 f. 'Bill John hit'

생성부: 위의 입력들을 가지고 생성부는 모든 가능한 구조들을 만들어 낸다. 만일 모든 언어가 투사원리를 준수한다면 이 원리들은 생성부상에 가해지는 제약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부는 최소주의이론에서 합병과 이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음운론에서와 같이 생성부는 단어나 자질을 첨가할 수도 있고 탈락시킬 수도 있다. 물론 첨가나 탈락된 후보는 충실성(Faithfulness)제약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적성이론에서는 위반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진단부: 생성부가 일련의 후보를 만들어내면 후보각각에 대해서 진단부는 최적성 평가를 하게 된다. 최적성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의 후보 군에서 최소한 하나의 최적후보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모든

합법적인 후보들 중에 최소한 하나의 최적 경쟁자(optimal competitor)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음운론에서처럼 어떤 경우에는 최적후보가 무형의 후보(null parse)인 경우도 있다. 즉 최적출력으로 아무런 입력도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무형의 후보는 유형입력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서 입출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충실성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다.

3. 공대명사와 통제

이번 3장에서는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최적성이론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겠다. 모든 언어에는 명사구 특히 대명사의 발음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시관계가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발음이 되지 않는 대명사를 발음되는 실 대명사와 구분해서 Pro라고 부른다. Pro란 인칭, 수, 성, 격 등과 같은 형태-통사자질이 없는 음성적으로 채로인 대명사를 말한다. 언제 대명사가 발음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포함한 구조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통제하는 특정한 통사제약들이 있다. 원리개변항이론에서는 그러한 공대명사의 사용을 통제하는 원리들을 인준조건이라고 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통제하는 원리들을 제안해왔다.

예문(13)은 영어에서 공대명사는 무시제 절의 주어자리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3) a. Mary hopes Pro/*she/*her to see Bill.
 b. Mary hired Bill after Pro/*her/*she interviewing him.
 c. Mary hopes she/*Pro will see Bill.
 d. Mary hired Bill after she/*Pro had interviewed him.

Pro는 (14)처럼 영어에서 동사의 직접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자리에는 일어날 수 없다:

- (14) a.*Mary promoted Pro. (직접목적어로 불가능)
 b. Mary promoted her.
 c.*Mary sent a letter to Pro. (전치사의 목적어 불가능)
 d. Mary sent a letter to her.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 Pro와 실 대명사의 상보분포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15)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동사들 예컨대 expect나 prefer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시제보문(nonfinite complement)

의 주어가 Pro나 실 대명사가 될 수 있고 consider나 believe와 같은 동사는 무시제보문의 주어는 반드시 실제명사이어야 한다.

- (15) a. *Mary expects Pro to have a good time.*
 b. *Mary expects her to have a good time.*
 c. **Mary considers Pro to have good taste.*
 d. *Mary considers her to have good taste.*

표준 원리대개변항이론에서 무시제절에서의 Pro는 지배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위치는 지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다른 위치는 지배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시제절의 주어는 INFL에 의해서 지배되고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는 그 통사나 전치사에 의해서 그리고 consider와 같은 동사의 무시제보문의 주어는 예외적으로 그 동사에 의해서 지배된다.

Pro를 해석하는 원리인 통제원리는 원리대개변항이론에서의 원리보다 더 문제가 많다. 어떤 문장들의 경우에는 Pro가 c-commanding NP와 공지시 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15)의 문장들의 경우 Pro가 *Mar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통제의 개념은 결속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결속되어야 하는 범위인 지배범주와 통제영역의 차이밖에는 다른 점이 없다.¹ (16)의 예문들은 표준 원리대개변항이론에서는 통제원리(Control Principle)로 설명을 한다:

- (16) a. [*Mary(i) hopes Pro(i) to promote Bill.*]
 b. [*Pat told Mary(i) Pro(i) to speak clearly.*]
 c. [*Mary(i) promised Pat Pro(i) to speak clearly.*]
 d. [*Mary(i) resigned after Pro(i) filing a protest.*]
 e. [*Mary(i) left after Pro(i) saying goodbye.*]

즉 Pro는 통제영역(control domain)에서 통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현상은 (17) 같은 문장에서는 Pro는 통제될 필요도 없고 통제될 수도 없다:

- (17) a. *Pro to behave better in public would help Bill's reputation.*
 b. *Pat asked how Pro to make flowers out of Kleenex.*
 c. *It's fun Pro to dance.*

¹ 통제영역(Control Domain)이란 공대명사와 잠재선행사와 시제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절이나 명사구를 뜻하며 그 성격상 결속이론에서 결속영역과 매우 흡사하다.

(17a)에서 Pro에 대한 유일한 잠재적인 선행사가 Pro를 성분통어하지 않고 있다. (17b)에서는 Pro는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갖고 있지만 외문사 *how*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17c)에서는 Pro는 전혀 선행사를 갖고 있지 않다. 원리대개변함이론에서는 이러한 난처한 문장들을 위반 불가능한 통제원리 (18)로 설명을 하고 있다:

(18) 통제원리: 만일 통제영역이 있다면 Pro는 통제영역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18)을 잘 살펴보면 이 통제원리는 이탤릭부분 때문에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제영역이 없으면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장을 요약한다면 영어의 Pro는 무시제절의 주어자리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격이 없는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면 반드시 선행사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영어에서 Pro의 분포를 최적성이론으로 설명해보겠다.

4. 영어 공대명사의 최적성이론 설명

이번 장에서는 영어의 Pro를 최적성이론을 이용해서 그 분포를 설명하겠다. 우선 Pro의 분포에 관여하는 일반적인 제약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제약으로 통제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최적성이론의 제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약이 (18)보다는 일반화된 보편성을 갖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8)에서 예외조항을 뺀 (19)와 같은 좀 더 보편적인 제약을 만들어 보자:

(19) 통제원리: Pro는 통제영역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대명사 Pro는 결속원리B에 해당되는 (20)과 같은 자유대명사원리를 준수한다고 가정하겠다.

(20) 자유대명사원리: 대명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Huang(1984, 89)이 말했듯이 통제영역과 지배범주가 일치하면, 통제원리와 자유대명사원리가 충돌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Pro가 통제되면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로우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uang이 결론을 내리듯이 Pro는 직접목적어 자리같은 자리를 피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Pro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적성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제약으로 설정하고 있는 충실성제약을 상정해야 한다. 충실성제약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21)과 같은 제약이다:

(21) 충실성제약: 만일 Pro가 입력부에 입력되면 출력도 Pro이어야 한다.²

위에서 세 가지 제약들을 상정했는데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 제약들간에 존재하는 계급성이다. 우선 현상을 설명하자면 (19)와 (20)의 두 원리 모두 (21)에 정의된 충실성제약인 MAX(PRO)제약보다 상위계급을 갖는 (22)와 같은 제약간 계급을 가정하겠다:

(22) 통제원리, 자유대명사원리 > 충실성제약

여기서 통제원리와 자유대명사원리사이에는 계급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기 위해서 ‘;’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 (22)의 계급은 (23)과 (24)에서 보는 것처럼 시제절의 주어위치에는 공대명사 Pro보다는 실대명사 her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

(23)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 충실성

Mary promoted Pro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
[Mary promoted Pro]	*!		
[Mary(i) promoted Pro(i)]		*!	0.71 0.60 0.71
[Mary promoted her]			*
[Mary(i) promoted her(i)]		*!	*

² 충실성제약이란 일종의 문장생성단계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약으로서 만일 입력부에서 공대명사가 선택되면 가능하면 선택을 변경시키지 말고 입력대로 공대명사가 선택되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약이다. 만일 입력에 탈락이나 생략 혹은 첨가등의 다른 통사변형이 일어나 출력이 입력과 다른 형태로 나오면 충실성제약을 위반한다는 음운론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최적성이론의 가정을 따르고 있다. 최소이론에서 말하는 경제성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여러가지 가능한 생성과정중에서 가장 최소의 노력을 요구하는 생성과정을 선택한다는 철학과 같은 제약이다.

(24)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 충실성

Mary hopes Pro will see Bill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Mary hopes [Pro will see Bill]	*!		
Mary(i) hopes [Pro(i) will see Bill]	*!		
☞ Mary hopes [she will see Bill]			*
Mary(i) hopes [she(i) will see Bill]		*!	*

지금까지 공대명사와 관련해서 격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 실명사는 격할당 위치에만 나타나야 하고 공대명사는 격이 없는 위치에만 나타난다고 가정해왔다. 최적성이론에서는 공대명사는 통제원리와 충실성계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격할당 위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제약은 불필요하다. 예컨대, (24)에서 시제절은 통제영역이기 때문에 시제절의 주어에 공대명사가 사용되면 항상 충실성계약보다 상위제급인 통제원리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성이론에서의 격계약은 일반적으로 (25)처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5) 격계약: 격할당된 명사만 격위치에 나타난다.

만일 (25)의 격계약을 통제원리와 자유대명사계약보다 상위에 놓으면 비시제절의 주어자리에 일반적으로 실대명사 대신 공대명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6)처럼 제약위상을 설정하면 'Mary hopes Pro to see Bill' 이라는 문장의 공대명사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다:

(26) 격계약 > 통제원리 > 자유대명사계약 > 충실성계약

Mary hopes Pro to see Bill	격계약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Mary hopes Pro to see Bill]		*!		
☞ [Mary(i) hopes Pro(i) to see Bill]			*	
[Mary hopes her to see Bill]	*!			*

이와 같이 제약위상을 정하면 (2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onsider'와 같은 동사들의 비시제보문절의 주어자리에 공대명사가 절대로 올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27) 보문절에 격이 할당되는 'consider'류 동사의 경우

Mary considers [+Case] Pro to have good taste	격계약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Mary considers Pro to have good taste]		*!		
[Mary(i) considers Pro(i) to have good taste]			*!	
*[Mary considers her to have good taste]				*
[Mary(i) considers her(i) to have good taste]			*!	*

이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7)에서 [+Case]가 나타내듯이 'consider'류의 동사들이 의무적으로 격을 할당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문절의 주어자리에 실대명사가 사용될 경우 최하위에 위치한 충실성 제약만을 위반하도록 함으로서 실대명사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expect'류의 동사처럼 공대명사와 실명사가 비시제절의 보문절에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이런 동사 류에는 격할당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즉 격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는 (28)처럼, 격이 할당되는 경우는 (29)처럼 표를 그리면 될 것이다:

(28) 보문절에 격이 할당되지 않는 'expect'류 동사의 경우

Mary expects [-Case] Pro to have good time	격계약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Mary expects Pro to have good time]		*!		
*[Mary(i) expects Pro(i) to have good time]			*	
[Mary expects her to have good time]	*!			*
[Mary(i) expects her(i) to have good time]	*!		*	*

(29) 보문절에 격이 할당되는 'expect'류 동사의 경우

Mary expects [-Case] Pro to have good time	격계약	통제원리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Mary expects Pro to have good time]		*!		
[Mary(i) expects Pro(i) to have good time]			*!	
*[Mary expects her to have good time]				*
[Mary(i) expects her(i) to have good time]			*!	*

(28)에서는 공대명사가 격계약과 통제원리를 만족시킴으로서 최적의 선택이 되었고 (29)에서는 실대명사가 격계약, 통제원리, 자유대명사를 만족시킴으로서 최적의 선택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영역 내에 선행사가 없는 공대명사의 경우를 살

퍼보겠다. 최소주의이론에서는 이런 경우 통제원리에 예외조항을 상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약의 간결성과 보편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자료들이다. 하지만 최적성이론에서는 (30)에서 보듯이 공대명사와 실대명사 중에서 통제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

(30) 통제영역내의 잠재선행사가 공대명사를 성분통어하지 않는 경우³

Pro to behave better in public would help Bill's reputation	격제약	통제원리	충실성제약
☞[Pro to behave ... Bill's reputation]		*	
☞[Pro(i) to behave ... Bill(i)'s reputation]		*	
[Him to behave ... Bill's reputation]	*!		*

(30)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에서 두 경우 모두 공대명사는 'Bill'에 의해서 성분통어되지 않으며 전자는 잠재선행사가 문장밖에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잠재선행사가 문장내의 'Bill'인 경우이다. 실대명사 'Him'이 사용된 세 번째 후보와는 달리 이 두 후보는 똑 같이 격제약과 충실성제약을 만족시키고 통제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동일한 최적후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통제원리가 위반되었음에도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음은 기존 다른 여타이론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최적성이론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론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31)에서처럼 통제영역 내에 잠재선행사가 전혀 없는 경우를 살펴보자:

(31) 통제영역 내에 선행사가 전혀 없는 경우

Pat wonders how Pro to make flowers out of kleenex.	격제약	통제원리	충실성제약
☞Pat wonders [how Pro to make flowers...]		*	
☞Pat(i) wonders [how Pro(i) to make flowers...]		*	
Pat wonders [how her to make flowers...]	*		*

(30)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31)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후보는 똑 같이 격제약과 충실성제약을 만족시키고 통제원리는 위반함으로써 동일하게 최적

³ 성분통어(C-Command)의 개념은 다음같은 전통적인 정의를 그대로 가정하겠다. A 노드를 지배하는 최초의 가지노드가 B노드를 지배하고 A와 B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으면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A c-commands B if a) the first branching node dominating A dominates B, and b) A and B do not dominate each other.)

후보로 선택되어 진다. 실대명사 'her'가 사용된 세 번째 후보는 가장 상위 계급의 격제약을 위반함으로써 첫 번째 칸에서 탈락됨으로서 최적의 후보로 선택받을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32)와 같이 잠재선행사가 전혀 없는 경우의 문장을 살펴보자:

(32) 선행사가 전혀 없는 경우

It's fun Pro to dance	격계약	통제원리	충실성계약
☞[It's fun Pro to dance]		*	
[It's fun us to dance]	*!		*

(32)는 문장 내에는 선행사가 없는 자유공대명사의 경우인데 실제 선행사는 문맥이나 담화 속에서 선행사를 찾아야 만 하는 문장이다. 공대명사가 사용된 첫 번째 후보가 비록 통제원리는 위반하지만 격계약과 충실성제약을 만족시킴으로서 실대명사가 사용된 두 번째 후보를 첫번째 칸에서 제치고 최적의 선택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우선 격할당위치에 공대명사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통제원리, 자유대명사원리 > 충실성제약의 계급을 설정함으로써 설명했고 실대명사가 격 없는 위치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격이론 > 통제원리, 자유대명사원리의 계급을 설정함으로써 설명했고 통제영역 내에 성분통어하는 선행사가 있으면 공대명사는 반드시 그 선행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제원리 > 자유대명사원리의 계급으로 설명했으며 통제영역 내에 성분통어하는 선행사가 없을 때 공대명사는 통제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통제원리 자체가 위반가능한 제약이라는 사실로 설명했다.

5. 한국어 공대명사의 최적성이론 설명

비시제절의 주어자리에만 공대명사를 허용하고 일반적으로 목적어자리에 공대명사를 허용하지 않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33)과 (34)처럼 주어자리와 목적어자리에 동시에 공대명사를 허용한다:

(33) 존(i)이 [Pro(i) 메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34) 존(i)이 [메리가 Pro(i)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영어자료를 위해 상정했던 제약들간의 계급과는 달리 자유대명사, 충실성

계약 > 통제원리의 위상으로 계급을 만들면 (33)의 예문은 (35)로 설명되고 (34)의 예문은 (36)으로 설명이 된다:

(35)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 통제원리

... Pro 메리를 협박했다...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통제원리
☞... Pro 메리를 협박했다...			*
... 그가 메리를 협박했다...		*!	

(36)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 통제원리

... 메리가 Pro 협박했다 ...	자유대명사	충실성계약	통제원리
☞... 메리가 Pro 협박했다...			*
... 메리(i)가 Pro(i)를 협박했다...	*!		
... 메리가 그를 협박했다...		*!	

(35)에서 실대명사 ‘그’보다는 공대명사가 충실성계약을 만족시킴으로서 비록 통제원리를 어기기는 하지만 최적의 후보로 선택받고 (36)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보 중에서 후자가 자유대명사원리를 위반함으로써 탈락되고 전자가 자유대명사와 충실성계약을 만족시키고 가장 하위에 위치해있는 통제원리만을 위반함으로써 최적의 후보로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어를 설명했던 세 가지 보편계약의 계급만을 바꾸어서 한국어의 공대명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어느 이론도 이러한 보편적인 계약의 적용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면에서 최적성이론의 설명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적성이론은 더 많은 세계언어간 주어와 목적어 공대명사의 분포와 해석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6. 앞으로의 전망

1960년대부터 언어학이론을 따라온 사람들은 아마 최적성이론이 통사규칙의 순차적인 적용을 연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적성이론의 규칙적 적용은 과거의 순서적인 규칙이론과는 다르다. Akmajian & Heny (1975:392)를 보면 표면구조를 얻기 위해 다음 (37)과 같은 영어의 순차적인 통사규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37) Ordered rules in English syntax

- | | | |
|------------------------|---------------------------|--------------------------|
| a. Dative Movement | h. Reflexivization | n. Neg Placement |
| b. Equi NP Deletion | i. Extraposition | o. Contraction |
| c. Raising to Object | j. <i>It</i> Deletion | p. Subject-Aux Inversion |
| d. Raising to Subject | k. Number Agreement | q. <i>Wh</i> -fronting |
| e. <i>For</i> Deletion | l. <i>There</i> Insertion | r. Affix Hopping |
| f. Passive | m. Tag Formation | s. <i>Do</i> Support |
| g. Agent Deletion | | |

계급이 있는 원리들과 순서식 적용원리들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순서규칙은 한 번에 한 개씩 차례로 적용된다. 최적성이론에서는 제약전체가 계급구조에 따라 배열되고 그 계급에 따라 최적후보가 선택된다. 둘째로 순서규칙에서는 규칙이 언어마다 서로 다르다. 최적성이론에서는 여러 언어간에 제약은 보편적이고 계급만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순서규칙모델이 폐기된 것은 규칙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들 때문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언어간의 보편적 일반성을 포착하기에 너무나 규칙이 특수하고 구체적이었다. 둘째, 언어마다 각각 다른 규칙을 가져야 했다는 점이다. 가능한 규칙 수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언어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규칙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셋째, 이러한 규칙들에 대한 특수한 제약들은 궁극적으로 규칙들의 순서적 적용을 불필요하게 해 버린다.

따라서 순서규칙모델의 폐기처분과 최적성이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최적성이론에서는 제약들이 최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결코 순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적성이론은 음운론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연구호름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사론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언어자료에는 많은 제약위반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반현상의 설명을 위해서 조만간 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최적성이론이 핵심아이디어인 제약간 계급성과 제약의 위반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계의 언어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보편소의 문제는 이제 겨우 발견의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현상들 뿐이다. 공대명사 현상도 수많은 언어간 보편현상들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이런 보편현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언어간 보편현상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편문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적성이론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틀의 형성기를 거치면서 차츰 차츰 그 적용범위를 넓혀 Moon(1995, 1999)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재귀대명사에 적용되는 언어간 보편현상과 Choi(1999)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귀대명사의 형태론적인 보편성 그리고 Pesetsky(1997)에서 주장하는 관계대명사의 이동현상에 관여하는 보편제약들에 대한 연구들은 최적이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밝게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적성이론에서 더 많은 현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무표적인 제약이 다른 이론에서처럼 복잡하고 부가조항이 많은 제약이 아니라 간단하고 명쾌하며 더구나 위반가능한 성질까지 포함하고 있음으로서 Zipf's Law(Zipf 1935:38)⁴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문법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kmajian, Adrian, and Frank Heny. 1975.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1995a. Bare Phrase Structure. In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ed. Gert Webelhuth, 383-439.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omsky, Noam. 1995b.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and Howard Lasnik. 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s. J. Jacobs, A. von Stechow, W. Sternefeld and T. Vennemann. Berlin: Mouton de Gruyter. Reprinted in Chomsky (1995b), 12-127.
- Choi, Ki-Sook. 1999.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To Anaphora.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Grimshaw, Jane. 1996. Projection, Heads and Optimality, *Linguistic Inquiry* 28:373-422.
- Grimshaw, Jane. 1998. Constraints on Constraints in OT Syntax. Unpublished manuscript,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J.
- Moon, Seung Chul. 1995. *An Optimality Approach to Long Distance Anaphors*. University of Washington. Doctoral Dissertation.

⁴ Zipf는 여기서 더 자주 빈발하는 현상과 그것을 제약하는 형태의 단순성의 상관관계 자체가 자연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말하였다.

- Moon, Seung-Chul. 1999. Optimal Anaphoric Interpretation in Psych-verb Construc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9:1, Seoul: Hankuk Mwuwhwada.
- Grimshaw, Jane, and Vieri Sameck-Lodovici. 1995. Optimal Subjects.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589-606. Amherst, Mass.:Graduate Linguistic Students Association.
- Pesetsky, David. 1997. Optimality Theory and syntax: Movement and Pronunciation. *Optimality Theory, An Overview*. eds. Archangeli and Langendoen. Blackwell.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RuCCs Technical Report #2, Rutgers University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Piscataway, N.J.
- Kager, Rene. 1999. *Optimality Theory, A text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ipf, Paul. 1935.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dynamic phil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한국항공대학교 영어과
412-791
Email: scmoon@mail.hankong.ac.kr
전화: +82-02-300-0071

접수일자: 1999. 10. 4.
게제일자: 1999. 10. 18.